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제22권 제4호(2011년 12월)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011;22(4):51-61

한의대생 46명의 지각된 모성애척도와 MMPI 척도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하지원, 김태헌, 김보경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신경정신과학교실

Study of the Correlation of the Percepted Maternal Love Scale and the MMPI scale on the 46 Oriental Medical University Students

Ji-Won Ha, Tae-Heon Kim, Bo-Kyung Kim

Dep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of the Percepted Maternal Love and the characteristics of personality showed on MMPI scale, of the Oriental Medical University students.

Methods :
For this study we carried out the MMPI profiling and Percepted Maternal Love Scale on self-check test term, among 46 senior students who are attending Oriental Medical University. After collecting the data, we studi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measures.

Results :
1. As the Percepted Maternal Love score increased, the Depression and Social Introversion score decreased conversely.
2. As the Percepted Maternal Love score increased, the Avoidant personality disorder score decreased.
3. As the Percepted Maternal Love score increase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ore increased as well.
4. As the scale of percepted mother's increased, the depressed, socially introverted character, and avoidant personality of the children decreased, and the self-loving personality character increased on the contrary.

Conclusions :
By the above results, we can come to the conclusion that in order to nurture the children to be self-loving and not to be depressed or intimidated, the mother must try to make sure that her children actually do perceive how much they are loved.

Key Words :
the Percepted Maternal Love, MMPI, nurture, Depression, Social introversion, Avoidant personality disorder,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투고 : 2011. 11. 08. 수정 : 2011. 11. 22. 채택 : 2011. 12. 04.
교신저자 : 김보경,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2동 산 45-1번지 동의대학교 부속한방병원
Tel) 051-850-8808, E-mail) npjolie@deu.ac.kr

Ⅰ. 서 론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 최초로 접하는 사회적 환경으로 아동이 훌륭한 인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가족관계 중에서 부모-자녀관계는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이며 독특한 관계로 그 어떤 관계보다도 우선적이고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다. 아동 개인은 자신의 부모를 통해 부모 역할을 학습하게 되고, 그렇게 학습한 부모의 양육방식을 세대 전수할 가능성이 크다. 즉, 부모는 자녀의 성장, 발달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의 하나이며, 성인이 된 후의 성격특성이나 인성발달과 대인관계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1].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매우 중요하며, 특히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올바르게 지각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성숙한 양육 태도가 중요하다. 그런데 어머니는 자녀에 대해 본인은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졌다고 생각하나, 정작 자녀는 어머니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지각을 하고, 특히 지나친 통제감을 많이 느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2].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 쪽에서 생각하는 양육태도가 아닌, 자녀에 의해 '지각된' 모성애 척도를 사용하여 실제 자녀가 느낀 모성애의 정도와 성격특성의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모성의 양육태도가 일관되지 않고, 모성애를 많이 느끼지 못하고 애정을 받지 못한 채 자라난 아동은 이후에 성인이 되어 우울하고[3-5], 사회친화적이지 못하며[6,7] 위축되고 고립되는 소극적인 성격이 형성되고, 지각된 모성애 척도 점수도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충분한 보호를 받고 자라난 아동은, 자아효능감과 자신감이 높은 성격 특성을 나타낼 것이며[8] 우울감도 낮을 것이라는[5] 전제 하에, 특정 성격 특성들과 모성의 양육태도가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다. 이를 위해 일개 한의대 졸업반 학생 50명 중 자료수집에 동의한 46명을 대상으로 MMPI 성격검사 척도와 본인이 지각한 모성의 양육태도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양육태도에 있어서는 현재에는 부성의 양육태도와 부모의 양육태도 일치유무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으나, 모성이 일차양육자이며 전통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양육자이므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모친만으로 한정해 그 상대에 대해 자녀 자신이 지각한 양육태도를 살펴보는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이를 통계 처리한 결과 다소의 지견을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1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OO대학교 한의학과 4학년 학생 50명 중 조사에 동의한 46명을 상대로 MMPI 프로파일을 수집하였고, 지각된 모성애 척도의 설문 검사를 실시하여 나온 자료 결과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배제된 4명에는 모친이 부재한 경우도 포함되었다.

2. 연구방법

1) MMPI 검사

MMPI는 김[9]의 검사요강에 따라 566문항을 실시하였으며, 채점은 전영민이 개발한 MMPI전문가 2002 프로그램으로 하여 원점수를 T점수로 환산한 4개의 타당도 척도, 10개의 임상척도 및 11개의 성격장애 척도를 이용하였다[10].

MMPI는 질문지형 성격검사로 상당히 투사법적 함축성을 띈 56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검사자가 “그렇다”, “아니다”의 두 답변 중 하나를 택하여 반응하게 되어있다. 10개의 임상척도는 피검사자의 비정상 행동 유형을 측정하는 것으로 건강염려증(Hs), 우울증(D), 히스테리(Hy), 반사회성(Pd), 남성특성-여성특성(Mf), 편집증(Pa), 강박증(Pt), 정신분열증(Sc), 경조증(Ma), 내향성(Si)로 되어있다. 피검사자의 검사태도를 측정하는 타당도 척도로는 L(알 수 없다)척도, L척도, F척도, K척도의 4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검사-재검사(Test-Retest, TR) 지수와 부주의(Carelessness, Ca) 척도를 통해 피검사자의 태도를 탐지할 수 있다. 성격장애 척도는 연기성 성격장애(HST), 자기애성 성격장애(NAR), 경계선적 성격장애(BDL), 반사회성 성격장애(ANT), 강박성 성격장애(CPS), 수동-공격성 성격장애(PAG), 편집성 성격장애(PAR), 의존성 성격장애(DEP), 정신분열형 성격장애(STY), 회피성 성격장애(AVD), 정신분열성 성격장애(SZD)에 대한 11개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11].

2) 지각된 모성애 척도

지각된 모성애 척도는 정[12]의 검사요강에 따라 자기의 어머니를 묘사하는 총 39문항에 각각에 대해 ‘아주 많이 그렇다(5점)’에서 ‘하나도 그렇지 않다(1점)’까지 5점 척도 상에서 반응한 것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자녀가 어느 정도 지각하고 있는지(지각된 모성애)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이다. 총점은 19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모성애의 수준은 높은 편이다.

3. 통계처리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 v.19(Korea, (주)데이타솔루션)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지각된 모성애 척도와 각 MMPI척도 사이의 상관분석과 이변량 상관계수 중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양측검정을 실시하여 관계성을 알아보았다. 통계학적 유의성은 $p<0.05$ 인 경우로 하였으며, 변수와의 방향은 Pearson 상관계수에서 (+)와 (-)로 표현하였다. 양의 상관관계일 경우에는 상관계수가 (+)값이 나타나고, 음의 상관관계의 경우에는 (-)값이 나타나는데, 양의 상관관계는 지각된 모성애 척도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되는 MMPI척도도 증가하는 경우를 말하며, 음의 상관관계는 지각된 모성애 척도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된 MMPI척도는 반대로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Ⅲ. 결 과

1. 검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징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전체 46명으로 남성 30명 65.2%, 여성 16명 34.8%이며, 평균연령은 27.96±4.36세였고 ,결혼 여부는 기혼이 7명 15.2%이고, 미혼이 39명 84.8%이었다(Table Ⅰ).

Table Ⅰ. Characteristics of the General Subjects in Total Students

		N	%
gender	male	30	65.2
	female	16	34.8
age(year)	average	27.96±4.36	
marriage	unmarried	39	84.8
	married	7	15.2
total		46	100

2. 검사 대상자들의 지각된 모성애 척도

검사 대상자들의 지각된 모성애 척도의 평균은 147.24±21.69점이었다. 최저점은 43점이고, 최고점은 179점이었다.

3. 검사 대상자들의 MMPI 성격 척도

대상자들에게 시행한 MMPI의 결과 나타난 성격척도의 산출빈도는 아래 표와 같다(Table Ⅱ, Fig. 1). 한의대생의 MMPI 척도의 평균은 정상범위 내에 해당한다.

Table Ⅱ. Average of MMPI Scale

Factor	L	F	K	TR	CA	ES
Average±SD	51.17±9.76	44.85±5.95	60.33±10.42	1.74±1.50	2.67±1.332	58.91±7.52

Factor	Hs	D	Hy	Pd	Mf	Pa	Pt	Sc	Ma	Si
Average±SD	52.70±6.30	47.89±8.73	50.96±7.87	51.74±9.52	47.59±10.33	46.13±7.97	46.11±7.13	42.83±8.66	45.48±10.41	46.04±9.85

Factor	HST	NAR	BDL	ANT	CPS	PAG	PAR	DEP	STY	AVD	SZD
Average±SD	53.39±8.52	54.37±8.76	44.43±8.87	45.91±7.40	41.07±9.88	42.20±9.10	43.65±7.77	42.41±7.26	41.67±7.34	44.57±9.30	47.93±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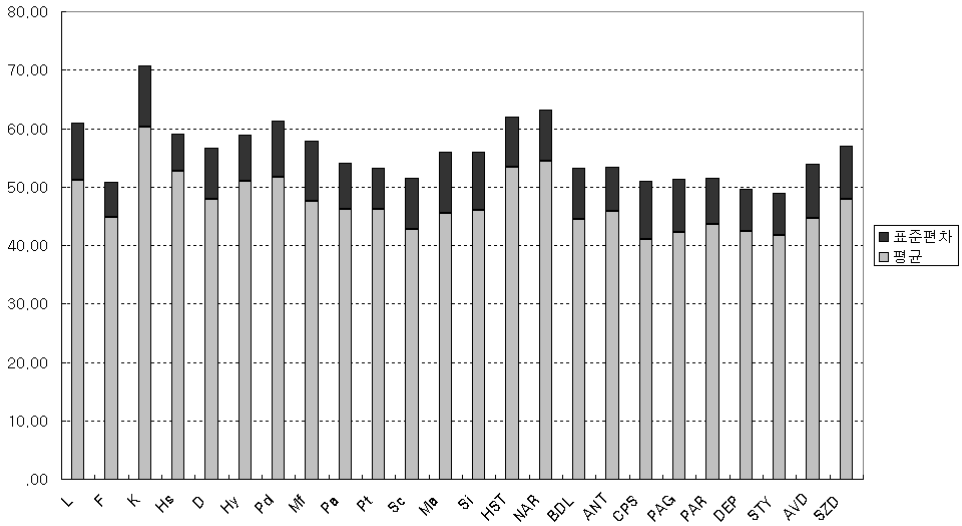


Fig. 1. The average of MMPI profile on the 46 oriental medical university students are shown as below.
L:Lie, F:Infrepuency, K:Defensiveness, Hs:Hypochondriasis, D:Depression, Hy: Hysteria, Pd:Psychpathic Deviate, Mf:Masculity-Feminity, Pa:Paranoia, Pt:Psychasthenia, Sc:Schizophrenia, Ma:Hypomania, Si:Social introversion, HST:Histrionic, NAR:Narcissistic, BDL:Borderline, ANT:Antisocial, CPS:Compulsive, PAG:Passive-Aggressive, PAR:Paronoid, DEP:Dependant, STY:Schizotypal, AVD:Avoidant, SZD:Schizoid personality disorder

4. 검사 대상자의 지각된 모성애 척도와 MMPI에서의 성격척도와의 상관관계

지각된 모성애 척도와 MMPI의 결과 나타난 Pearson 상관관계의 상관계수와 유의확률 값은 아래 표와 같다(Table Ⅲ).

Table III.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P-value(two-tailed) from Bivariation correlation between MMPI scales and Percepted Maternal Love scales

Factor	L	F	K	TR	CA	ES
correlation coefficient (Pearson's)	-.110	-.016	.112	-.319	-.125	.104
p-value	.466	.915	.460	.031	.409	.490

Factor	Hs	D	Hy	Pd	Mf	Pa	Pt	Sc	Ma	Si
correlation coefficient (Pearson's)	-.125	-.324*	-.007	-.126	.007	-.209	-.231	-.050	.087	-.364*
p-value	.409	.028*	.963	.405	.961	.163	.122	.743	.566	0.013*

Factor	HST	NAR	BDL	ANT	CPS	PAG	PAR	DEP	STY	AVD	SZD
correlation coefficient (Pearson's)	.264	.407*	-.001	-.056	-.038	-.252	-.010	-.149	-.158	-.366*	-.225
p-value	0.076	.005*	.996	.711	.802	.091	.949	.324	.294	.012*	.134

*p<0.05, it is regarded statistically signifficant.

Ⅳ. 고 찰

많은 발달심리학자들은 인간 발달의 기본적인 시작점을 부모 자녀간의 관계에 두고 있다. 따라서 유아기 때 부모나 양육자와 적절한 신뢰감을 경험하지 못하면 청소년기에 타인과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역량이 손상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체감의 혼미에 빠질 수 있다[7].

부모 자녀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태도란 어머니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일반적,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모든 태도 및 행동을 의미하며[1] 많은 연구들에서[3,4,5,8] 영아나 아동기에 있어서 양육자의 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이나 성격, 우울감, 사회적 자신감 등에 있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가 증명되어 왔고, 대학생 등 성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대상에 대한 양육태도의 영향도 드물지 않게 연구되어 왔다[2,13].

인간은 어느 종보다도 무력한 영아기가 가장 길어서 생존을 위해 여러 해 동안 부모나 양육자의 양육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양육 과정에서 애착이 생기며, 영아들이 받는 양육의 종류가 그들이 형성하는 애착의 종류에 큰 영향을 준다. 만일 부모가 양육할 때 민감하여 영아의 요구를 쉽게 알아차려 신속하고 적절하게 반응한다면, 영아는 안정되게 애착을 발달시킬 수 있다. 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된 영아들은 긍정적 자기상이 발달하기 쉬우며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발달한다. 반면에 부모가 양육에 있어서 민감하지 못하면 여러 종류의 불안정 애착이 형성된다[14].

애착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성공적 사회화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 부모가 좋다고 생각하는 행동은 사랑으로 보상되고 부모가 나쁘다는 행동은 사랑의 철회로 처벌된다. 정상발달에서 아동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능에 거슬러 부모의 지도를 따르는 것은 그들이 복종에 대한 대가로 받는 애정이 그 대신에 잃어버리게 되는 자율성을 충분히 보상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동기에 부모가 아동의 요구에 부적절한 애정으로 보상한다면 자녀를 일탈발달로 이끌게 될 수도 있다. 애착은 우정이나 배우자 선택 등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의 정서적 유대 형성의 중요한 바탕이 되는 특성이다[2]. 따라서 양육자, 특히 모성의 존재는 자녀의 성격 형성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영아기의 적절한 돌봄은 감상적 사치가 아니라 최적의 발달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15].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의 양육태도 중 모친의

양육태도에 좀 더 초점을 맞추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부의 양육태도도 아동기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 1 양육자로서 모의 양육태도와 모친이 보여주는 모성애가 아동의 애착 형성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모성애척도가 낮을수록 내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음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인식하는 모성애의 정도가 낮을수록, 즉 애정적인 양육을 받지 못할수록 사회적인 접근성이 떨어지고 내향적인 성향이 나타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이전의 연구에서 밝혀졌던 바와 같이,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강할수록 유아의 문화자본이 감소하고[16], 자녀의 과민성, 비협조성이 높게 나타나며[17], 유아의 사회적 회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10]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의 의사 결정에 대해 허용하고 이해하는 양육태도를 지닐수록 그들의 자녀가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한다는[7]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단순히 유아나 아동 뿐 아니라 본 연구에서처럼 이미 성인기에 속하는 대학생이나 직장인을 상대로 실시한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상통하는 결론들을 볼 수 있는데, 대학생이 자각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녀의 대인관계 문제는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와[2], 직장인에 있어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자기가치와 역량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직무수행에서의 동기부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던[13] 연구결과 등이 있다.

그리고 지각된 모성애척도가 낮을수록 우울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음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애정적인 양육을 받지 못한 사람일수록 우울하다는 결과이다. 이는 부모의 애정을 느끼지 못한 양육을 받을수록 자기주도력이 부족하고[18], 자기효능감이 낮으며[8],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적대적, 비합리적 양육을 받을수록 자녀의 우울감이 높아진다는 이전의 연구 결과들과도 일치하는 바이다[3,4,5,19].

그리고 또 다른 연구결과에서는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신경증, 외향성, 지적개방성, 친화성 등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거부, 과잉보호, 편애의 양육태도는 청소년들의 자기지각 및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경증과 관련이 있는 불안, 분노, 우울을 극복하는데 부모의 온정과 편애의 양육태도는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20].

반면에 지각된 모성애 척도가 높을수록 자기애성 성격척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양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실제로 성격장애의 기준이 70 이상인데 70점인 1명의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자기애성 성격특징이 장애 수준이 아닌 40~70 사이인 결과를 보면 자기애성 성격특성이 높다고 해서 문제적이고 사회적으로 부적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애가 강하고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고 자기존중감 및 자신감이 강한, 자기애성 인격 중 긍정적인 성격특질을 많이 띄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이는 이전에 실시된 연구결과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나타난 것과도 일치한다[21].

또한 지각된 모성애 척도가 낮을수록 회피성 성격특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회피성 성격장애의 특징은 거절, 배척에 대한 극도의 예민성으로 위축되고 친밀함을 강하게 원하고 있으나 겉으로는 부끄러워하며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이다[18]. 밀론의 가설에 의하면 회피성 성격의 발생배경 중 하나로, 아이

에게 짜증내고 야단치며 화를 내는 부모의 양육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대접을 받은 아동은 회피적 애착을 형성하여 어머니에게 매달리는 행동을 포기하고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 노는 등 혼자만의 세계로 후퇴하게 된다. 이런 아동은 성장한 뒤에도 인간관계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친밀한 관계를 회피한다고 하였다[22]. 본 연구에서도 지각된 모성애 척도가 낮을수록 회피성 성격특성이 나타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나, 모성애를 충분히 느끼지 못하는 양육을 겪은 경우 애정을 갈구하긴 하나 애정을 받을 자신이 없어 관계 자체를 회피해버리게 되는 성격으로 자라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대학생을 상대로 한 연구에서 부모가 애정 없는 통제를 할수록 성인이 되어 가지는 애착유형 중 두려움형이 많았다는 연구결과[23]와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연구를 시행한 결과, 비정상 행동척도인 우울척도, 내향성척도, 그리고 성격장애 척도인 회피성 성격척도에서 가설과 같이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지각된 모성애척도가 낮을수록 우울척도, 내향성척도, 회피성 성격척도가 높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모성애척도와 성격장애 척도인 자기애성 성격척도는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지각된 모성애척도가 높을수록 자기애성 성격특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도 한의대생의 MMPI 프로파일 특성에 대한 연구는 시행된 바 있었으나[7],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한의대생의 MMPI 특성 뿐만 아니라 이와 지각된 양육태도와의 연관성을 찾기 위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대상인 한의과대학 학생들은 학력과 지능이 균일하므로 이들 내에서 성격척도에 영향을 미칠 다른 큰 변인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실제 지각된 모성애 척도에서 43점에서부터 179점까지의 편차가 나타났는데, 한의대의 특성상 현역인 대학생에서부터 학교를 졸업하고 재입학 하는 학생까지 연령대가 다양하고 미혼에서부터 타 대학교에서 찾아보기 힘든 기혼에 자녀를 가진 대상자들도 다수 존재하며 경제적인 여건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집단의 대상이 현재 양육을 받고 있는 영유아기가 아니므로 양육태도척도에 관한 내용은 신뢰성이 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으며, 집단의 규모가 작아서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모성애 척도에 대해서만 조사해 보았는데, 맞벌이 가정이 늘고 있는 현재의 추세에서 보육원 및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제1양육자인 경우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향후에도 양육태도와 연관된 성격특성 및 정신병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때 고려되어야 할 부분들이다.

Ⅴ. 결 론

OO대학교 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 50명 중 46명을 대상으로 지각된 모성애 척도와 MMPI 척도의 상관성을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지각된 모성애 척도가 높아질수록 MMPI 척도 중 피검사자의 비정상 행동 유형을 측정하는 척도인 우울증(D), 내향성(Si) 척도가 낮아진다.
2. 지각된 모성애 척도가 높아질수록 MMPI 척도 중 성격장애 척도인 회피성 성격장애(AVD) 척도가 낮아진다.

3. 지각된 모성애 척도가 높아질수록 MMPI 척도 중 성격장애 척도인 자기애성 성격장애(NAR) 척도가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검사자가 정상 범위내의 수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단순히 성격 특성의 범위로 보고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4. 자녀가 지각하는 모성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하거나 내향적인 성격과 회피적 성격특성이 낮으며, 자기애성 성격특성을 강하게 띈다.

이상의 결과들을 보아 피양육자가 자신에 대한 애정을 충분히 키우고 우울감과 위축되는 성향을 키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양육자가 자녀로 하여금 모성애의 정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Kim SJ, Kim YH. Review about Child Rearing Attitude of Parents. The Journal of the Academic Society of Parent-Child Health. 2007;10(2):172-81.
2. Nam SC, You YD. The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Parents adn Children and College Students' Self Differentiation on Their Interpersonal Problems.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2007; 12(2):51-75.
3. Jung ES, Cho HI. The Effects of Parental Care and Overprotection on Subjective Well-being and Depression: The Roles lf Hardiness as Mediator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9;21(1):209-27.
4. Yang YJ, Chung KM. The Effect of the Mother's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 Depression: The Mediating Role of Avoidant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 Clarity.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8;27(3) :669-88.
5. Ryu JH, Han JH. Influences of Adolescents'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on the Depression: Focused on the Industrial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009;11:121-40.
6. Lim SS, Lee JM, Kim YH. Effects of the Mother's Parenting & Young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on Sociability.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2010;16(2):143-57.
7. Noh MN, Kwon YH. Mediated Effect of Children's Self-Regulation beteween Thier Prosocial Behaviors and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010;48(4):31-41.
8. Park WS, Kim MS.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009;22(4):85-108.
9. Kim ZS.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Revised Edition. Seoul: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96:1, 18-22, 31-122.
10. Kim JH, Park BR, Jang HH, Kim TH, Lyu YS, Kang HW.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MMPI Profile and Personality in Patients with Hwa-byung.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009;20(3):189-203.
11. Lee DW, Kim BK. Study about Personality Traits of Oriental Medical Students in

Graduating Class on MMPI (1).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009;20(3):217-27.
12. Jeong YS. Effects of Concern for Mother on Children's Self-Control. Seoul: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94:28-35.
13. Park KH. The Influence of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and Self-differentiations on the Core Self-evaluatinos in the Employee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011; 30(1):243-64.
14. Charles Wenar, Patricia Kerig.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4th edition. Pakhaksa. 2006 :30-3, 177.
15. Janis A. Di Ciacco. The Colors of Grief: Understanding a Child's Journey Through Loss from Birth to Adulthood. Human & Books. 2009:84-6.
16. Kim HW, Kwon DT. A Study on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Cultural Capital and Parenting Attitudes. Journal of Learner -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09; 9(2):101-17.
17. Park JH, S대 SW, Chung JH, Li SS, Jang SH.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Parenting Style and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i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0;10(1):107-26.
18. Lee IS, Lee SH.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and Kindergartener's Social Development.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009;18(3) :177-89.
19. Jeong EG.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and Mother's Parenting Attitude and Big-Five Personality of Adolescents. The Journal of Korean Youth Research Association. 2007; 14(3):79-110.
20. Kim JH, Gug YJ, Choi SY, Kim TH, Lyu YS, Kang HW. The Study on Characteristics of Panic Disorder Through Clinical and Personality Scales in MMPI of Patients with Panic Disorder.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005;16(1):129-42.
21. Hong YR. Effects of Child-rearing Attitude and Parent-School Age Communication on Self-Efficacy of School-age Children.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2009;15(4):392-400.
22. Lee YY, Jeon HY. Factors of College Students' Love Styles: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and Adult Attachment.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2009;14(2) :99-121.
23. Min BB, Nam KS. Dependant Personality Disorder and Avoidant Personality Disorder. 1st edition. Hakjisa. 2000:61-2, 161-3.

부록

지각된 모성애 척도

아래에 있는 질문에는 질문마다 "아주 많이 그렇다(5점)" "많이 그렇다(4점)" "조금 그렇다(3점)" "아주 조금 그렇다(2점)" "하나도 그렇지 않다(1점)"의 5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질문을 하나씩 하나씩 잘 읽어보고 여러분의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그 5개의 대답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생각해 보고 여러분의 어머니에게 가장 잘 들어맞는 대답 1개에 O표해 주세요.

아주 많이 그렇다　많이 그렇다　조금 그렇다　아주 조금 그렇다　하나도 좋지 않다

(우리 어머니는)

1. 어머니는 내가 학교생활에서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늘 살피신다.
2. 어머니에게는 나의 건강과 행복이 가장 소중하다.
3. 힘들 때에 어머니는 나로 인해 힘을 얻으신다.
4. 우리 어머니에게는 내가 있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다.
5. 어머니는 내 행동을 보고 내 마음까지 읽는다.
6.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더라도 우리 어머니는 나를 이해해 주신다.
7.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어머니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할 수 있다.
8. 어머니는 다른 데서 화가 나면 나에게 화풀이 하실 때가 없다.
9. 어머니가 일이 있어 집을 떠나 있을 때에도 어머니의 마음은 늘 나에게 있다.
10. 어머니는 나의 나쁜 습관과 단점을 나무라기보다는 고쳐주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신다.
11. 어머니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걱정될 만한 말은 잘 하지 않는다.
12. 어머니는 내가 애를 먹이더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13. 우리 어머니는 요즈음 내가 괴로워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14. 어머니는 내가 힘이 없어 보이면 내 마음이 불편한지 몸이 아픈지 찾아내려고 말없이 살핀다.
15. 어머니는 나를 존중해 준다.
16. 어머니는 늘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
17. 어머니는 진심으로 내가 잘 되기만을 바라신다.
18. 어머니는 내가 어떤 일을 의논하면 하시던 일을 멈추고 응해 주신다.
19. 어머니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려고 노력하신다.
20. 내가 잘못했을 때에도 어머니는 내 대신 상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실 수 있다.
21. 어머니는 어머니에게 필요한 일보다 나에게 필요한 일을 더 먼저 생각한다.
22. 내가 어떤 일을 힘들어하면 어머니는 마음이 아파하신다.

23. 어머니는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거나 깎아내리는 말은 하지 않으신다.
24. 어머니는 내 문제에 대해서 가능한 나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신다.
25. 만약 내가 나쁜 짓을 한다면 어머니는 나에게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다.
26. 내가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어 하면 어머니는 웬만한 일은 뒤로 미루고 나와 함께 지낸다.
27. 어머니는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을 즐거워한다.
28. 어머니는 내 고민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진지하게 들어주는 편이다.
29. 내가 사소한 일로 남에게 비난받으면 어머니는 내 편이 되어준다.
30. 만약 내가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면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서 나를 구할 것이다.
31. 다른 사람은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에라도 우리 어머니는 나를 믿어줄 것이다.
32. 어머니는 내 잘못을 꾸짖는 경우라도 마음속으로는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33. 우리 어머니는 내가 잘되는 것이라면 어떤 고생도 참아내실 것이다.
34. 어머니는 내가 못하는 것이 있더라도 조바심을 내지 않고 나를 지켜보신다.
35. 어머니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세심하게 살핀다.
36. 어머니는 내가 남들보다 뒤떨어지면 낙심하지 않도록 나를 격려해 주신다.
37. 어머니는 내가 잘못하면 화를 내기보다는 나를 걱정한다.
38. 어머니는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39. 어머니는 나와 약속한 것을 잘 지키신다.